

전북방언 ‘-쟁이’ 파생어의 형태 · 의미적 특징*

이은선(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쟁이’ 파생어의 의미적 특징 |
| 2. ‘-쟁이’ 파생어의 형태적 특징 | 4. 나가기 |

1. 들어가기

이 논문의 목적은 전북방언에서 나타나는 ‘-쟁이’ 파생어의 형태 · 의미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¹⁾ 접미사 ‘-쟁이’는 중앙어에서는 물론 전북방언에서도 아주 생산성이 높은 접사로 다양한 파생어를 생산해 낸다.

(1) ‘-쟁이’ 「접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2106).

1) 부족한 원고를 보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이 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연구를 이어 나가며 더 나은 논의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 ‘1」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2」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런 사람을 낚잡아 이를 때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과 같이 접미사 ‘-쟁이’를 일부 명사 뒤에 붙여 ‘겉쟁이, 고집쟁이’에서와 같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관상쟁이, 이발쟁이’에서처럼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방언에서 접미사 ‘-쟁이’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어기²⁾에도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전에 제시된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접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미사 ‘-쟁이’의 형태·의미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먼저 전북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파생어 추출에 사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어자료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군산시, 고창군, 임실군)』, 국립국어원
2. 『한국구비문학대계 5-1(남원군)-5-7(정읍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3』, 뿌리깊은나무.
4. 『한국방언자료집 5: 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전라북도 방언사전』, 전라북도
6. 전북 방언 관련 논저 및 전라북도 출신 작가들의 문학 작품

전북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를 모두 추출하고, 이를 형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고루 살핀다면, 전북방언에서 사용되는 접미사 ‘-쟁이’의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근, 어기’의 개념은 이익섭(1975/1993)에 따른다.

2. 접미사 ‘-쟁이’의 형태적 특징

‘-쟁이’ 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을 살피기 전에, 먼저 본고에서 다룬 접미사 ‘-쟁이’의 범위에 대해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접미사 ‘-쟁이’는 기원적으로는 기술자를 의미하는 한자어 ‘匠’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접미사 ‘-장이’가 움라우트를 겪은 형태이다. 송철의(1992)에서는 접미사 ‘-장이’의 발달 과정을 ‘칠장(漆匠), 조각장(彫刻匠)’에 ‘-이’가 결합되어 ‘칠장이, 조각장이’가 되고, 이들에서 ‘-장이’가 하나의 접미사로 인식되어 ‘칠+-장이, 조각+-장이’로 분석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영(2005)에서는 한자어 어근 ‘장(匠)’이 ‘간판(看板)장, 도채(塗彩)장, 칠장’ 등 한자 합성어의 후행 요소로 쓰여 ‘장인(匠人)’의 어휘 의미를 지니다 이러한 합성어에 고유어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한자 혼종 파생어를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장’은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그 의존성과 형태적 불안정성 때문에 ‘간판+-장이’로 재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맞춤법 규정에서는 기술자를 의미할 때는 ‘-장이’를, 그 외는 ‘-쟁이’가 붙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으나, 전북방언에서 ‘-장이’와 ‘-쟁이’는 의미가 변별되는 접사로 기능하지 않는다. (2)에서와 같이 접미사 ‘-장이’가 결합된 파생어가 극히 드물고, 이들은 모두 움라우트를 겪은 ‘-쟁이’ 파생어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접미사 ‘-장이’와 ‘-쟁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쟁이’로 다루려고 한다.³⁾

(2) 점장이~점쟁이, 관상장이~관상쟁이, 대장장이~대장쟁이

‘-쟁이’ 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은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는 선행 어기의

3) 전북의 일부 지역, 고창에서는 ‘점재~이(점쟁이), 겁재~이(겁쟁이), 난재~이(난쟁이), 오금재~이(오금)’ 등과 같이 접미사 ‘-쟁이’가 비모음화를 겪은 형태인 ‘-재~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재~이’ 파생어형도 함께 다룰 것이다.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ㄱ. 썰-쟁이(멧쟁이),⁴⁾ 멧-쟁이, 솟-쟁이, 말-쟁이, 활-쟁이(궁수),
 땀-쟁이, 빗-쟁이, 코-쟁이, 독-쟁이, 모-쟁이,⁵⁾ 배-쟁이(임신
 부), 복-쟁이(복어)
- ㄴ. 가난-쟁이(가난뱅이), 난봉-쟁이(난봉), 상투-쟁이, 튀밥-쟁이,
 소금-쟁이~소금-재~이(소금장수), 오금-쟁이~오곰-쟁이(오곰),
 눈썹-쟁이(눈썹), 예수-쟁이, 구석-쟁이(구석), 애꾸-쟁이, 성냥
 -쟁이(대장장이), 뿌리-쟁이(뿌리), 깃신-쟁이, 때썸-쟁이(때썸),
 가르-쟁이(가랑이), 부엌-쟁이(부엌데기), 풀목-쟁이(팔목), 풀
 미-쟁이~불미-재~이(대장장이)
- ㄴ'. 썰닥-쟁이(썰데),⁶⁾ 등글-쟁이
- ㄷ. 부실떡-쟁이, 마누라-쟁이, 바느질-쟁이, 거짓말-쟁이

(3)은 고유어 명사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의 예들이다. (3ㄱ)의 ‘썰쟁이’는 중앙어 ‘멧’에 대응하는 전북방언 ‘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멧을 잘 부리는 사람, 멧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3ㄱ)의 ‘배쟁이’는 ‘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즉, ‘임신부’를 지칭하는 파생어이다. (3ㄴ)의 ‘소금쟁이’는 ‘소금’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소금을 파는 장수’를 뜻하고, ‘성냥쟁이’는 ‘무딘 쇠 연장을 불에 불리어 재생하거나 연장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성냥’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대장장이’를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장장이’와 함께 ‘성냥쟁이~성녕쟁이’ 등이 쓰인다. ‘깃신쟁이’는 ‘가죽신’을 의미하는 ‘깃신’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파생어이다. ‘깃신’은 ‘깃신’에 어두경음화가 적용된 형태이다.

(3ㄴ')는 접미사 ‘-쟁이’ 결합 시 선행 어기의 형태가 변하는 예들이다. ‘썰닥쟁

4)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5) 모를 낼 때에, 모춤을 벌러 돌리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6) “그런 썰닥쟁이 없는 소리는 듣기도 싫고.” <최명희, 혼불>

이’는 ‘쓸데’에 대응하는 전북방언형으로 이 지역에서 ‘쓸데기’는 ‘쓸데기~쓸데기, 쓰잘따~쓰잘따, 쓰잘떼기~쓰잘떼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썰닥’은 ‘썰데기’가 축약된 것으로 접미사 ‘-쟁이’ 결합 시 어근의 말모음이 탈락한 것이다.⁷⁾ ‘둥글쟁이’는 ‘둥우리’를 뜻하는 ‘둥그리’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둥그리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 역시 접사가 결합하면서 선행 어근의 말모음이 탈락하였다.⁸⁾

(3ㄷ)의 ‘부실떡쟁이’는 ‘부스럼’에 대응하는 전북방언형 ‘부실떡’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얼굴에 종기가 많이 난 사람’을 뜻한다.⁹⁾

(4) ㄱ. 점-쟁이(占-), 총-쟁이(銃-), 욱-쟁이(辱-), 겁-쟁이(怯-), 병-쟁이(病-), 상-쟁이(相-)

ㄴ. 거간-쟁이(居間-), 목수-쟁이(木手-), 무식-쟁이(無識-), 문북-쟁이(問卜-), 사주-쟁이(四柱-), 석수-쟁이(石手-), 아편-쟁이(阿片-), 엽총-쟁이(獵銃-),¹⁰⁾ 영감-쟁이(令監-), 요술-쟁이(妖術-), 욕심-쟁이(欲心-/慾心-), 월급-쟁이(月給-), 봉급-쟁이(俸給-),

7) ‘썰데기’는 ‘쓸데기’의 1음절 모음이 전설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쓸데기’는 ‘쓸 + 데 + -기’로 분석 가능한데, 의존 명사 ‘데’의 중세 국어형이 ‘다’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썰닥’은 ‘썰 + 다 + -기’가 축약된 형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8) 이렇게 3음절 명사 어기에 접사가 결합할 때 선행 어근의 말모음이 탈락하는 것은 ‘-쟁이’ 파생어의 선행 어기가 대부분 2음절인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 전북방언에서 ‘부스럼’은 ‘부수름~부시름’, ‘부실떡~부실묵~부실묵’, ‘진짐’과 같이 세 유형의 방언형을 보이는데, ‘부실떡쟁이’는 이중 ‘부실떡’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쓰인다.

『옛날에 똑같은 친구였던 개비여. 하나는 코홀쩍이, 하나는 눈깜쟁이, 하나는 부실떡쟁이. 선이(셋이) 인자 되야 앉아서 내기를 하자고 했어. 무신 내기냐 허면 딱 한 시리를 해놓고 누구든지, 홀쩍이가 되었던지 먼야(먼저) 안 홀쩍이고, 눈 깜쟁이가 먼저 안 깜쟁이고 부실떡쟁이가 인제 먼저 안 굽는 사람, 누구든지 끝에 까지 안허는 사람이 딱 한 시리를 다 먹기로 <중략> <구비문학대계, 부안군>

10) ‘엽총쟁이’는 ‘엽총을 사용하는 포수’를 의미한다.

『조개(조금) 있으께 뒷산에서 느닷없이 총 소리가 쿵 튀듯이나, 소리가. “아, 똥 총소리가 나고?” 하고 들어보니까 엽총쟁이들이 아마 사냥하러 온 모양여. <구비문학대계, 부안군>

유식-쟁이(有識-), 이언-쟁이(醫員-), 주막-쟁이(酒幕-), 중매-쟁이(仲媒-), 지관-쟁이(地官-),¹¹⁾ 포수-쟁이(砲手-), 풍수-쟁이(風水-),¹²⁾ 폐병-쟁이(肺病-), 간질-쟁이(癲疾-),¹³⁾ 평풍-쟁이(屏風-), 본토-쟁이(本土-),¹⁴⁾ 도배-쟁이(塗楷-), 신문-쟁이(新聞-),¹⁵⁾ 관상-쟁이(觀相-),¹⁶⁾ 대포-쟁이(大砲-),¹⁷⁾ 출판-쟁이(出版-), 허겁-쟁이(虛怯-), 오기-쟁이(傲氣-)

(4)는 한자어 명사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예들로, 접미사 ‘-쟁이’는 고유어와 한자어 어기에 모두 활발히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ㄴ)의 ‘문복쟁이’는 ‘점쟁이에게 길흉을 묻는 행위’를 지칭하는 명사 ‘문복(問卜)’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점쟁이’를 뜻한다. (4ㄴ)의 ‘출판쟁이’는 ‘출판(出版)’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출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고, ‘허겁쟁이’는 겁이 많음을 뜻하는 명사 ‘허겁(虛怯)’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오기쟁이’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뜻하는 ‘오기(傲氣)’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한다.¹⁸⁾

(5) 가스-쟁이, 뽕끼-쟁이, 보일러-쟁이

(5)는 외래어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예들로, ‘까스쟁이’는 ‘가스(gas)’에

11)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밋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卜장사. 지사. 풍수. <표준국어대사전>

12) ‘지관’을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3) 간질병이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4) 본토박이.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15) ‘신문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6) ‘관상가’를 낮잡아 이르는 말. 卜상객. 상쟁이. <표준국어대사전>

17)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를 빗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8) 『오기창』은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서 오기쟁이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송기숙, 녹두장군>

어두경음화가 적용된 형태인 ‘까스’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가스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파생어이다. ‘뽕끼쟁이’는 ‘페인트(paint)’의 전북 방언형 ‘뽕끼’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페인트 칠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고, ‘보일러쟁이’는 ‘보일러(boiler)’에 ‘-쟁이’가 결합하여 ‘보일러를 수리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¹⁹⁾

(6) 외통-쟁이(외通-), 시어매-쟁이(嫗어매-)

(6)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종어를 어기로 삼아 파생어를 만들어 낸 예들이다. ‘외통쟁이’는 ‘외통(外通)’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뜻하고, ‘시어매쟁이’는 ‘시어머니(嫗-)’의 전북방언형인 ‘시어매’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이다.

(3)~(6)을 통해 접미사 ‘-쟁이’는 2음절 명사 어기에 가장 활발히 결합하며, 1음절, 3음절 명사 어기에도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고유어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며 외래어, 혼종어에도 결합하여 파생어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어기에 ‘-쟁이’가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ㄱ. 벨꼴이 반쪽이네. 여그서는 귀가 멍멍하니 잘만 듣기는다 으째 그짜서는 귀먹쟁이 송내로 엉뚱깁뚱헌 대답만 근너온다요?” <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ㄴ. 아, 인제 점심 때쯤 가니께, 고삿질(골목)에서 꽤복쟁이 놈들이 누어서 떡하니 놀아. 아 이놈들 봐라 ... <구비문학대계, 완주군>
 ㄴ'. 피벽-쟁이<지역어, 완주군>, 깨벽-쟁이<지역어, 남원>

(7)은 동사 어간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들이다. (7ㄱ)의 ‘귀먹쟁이’

19) ‘보일러쟁이’에 대응하는 중앙어는 ‘보일러공(boiler工)’인데, 전북방언에서는 동일 어근에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보다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들의 사용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즉 ‘청각장애인’을 의미한다.²⁰⁾ (7ㄴ~ㄴ’)의 ‘피복쟁이’는 ‘옷을 모두 벗다, 발가벗다’를 뜻하는 전북방언 동사 ‘피벗다’²¹⁾의 어간 ‘피벗-’에 ‘-쟁이’가 결합하여 ‘옷을 모두 벗은 몸 또는 옷을 모두 벗은 사람’을 뜻한다.²²⁾

(8) ㄱ. 말도 말소. 그 뽕뽕쟁이더러 술 한 잔 사라고 했다가 어트케 술 먹고 괴함을 질르고 그리서 내가 내고 나와버렸당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ㄱ’. 충각, 삼례 갔다 왔답시로, 참말로 큰일하고 왔네 하고 반색을 하등마는 어서 와서 막걸리 한잔 묵으라고 막걸리를 한잔 안 주냐? 뽕뽕쟁이로 소문난 그 할무니한테 공술 얻어 묵기는 말 묵 생기고 나서 내가 침일 것이다.<송기숙, 녹두장군>

20) 전북방언에서 ‘귀먹다’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귀가 어두워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아니하게 되다’의 의미와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 접미사 ‘-쟁이’는 ‘귀가 어두워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아니하게 되다’라는 ‘귀먹다’의 첫 번째 의미에 결합한 것으로 ‘귀먹쟁이’는 ‘청각장애인’만을 의미한다.

21) 전라 방언과 국어사 자료를 검토한 이태영(2011)에서는 ‘피벗다’의 ‘피’가 ‘바지’의 의미를 지닌 ‘고의’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고, ‘고의’는 *〈ᄃᄆᄃ〉〈ᄃ외〉〈고외〉〈의〉〈피〉〈피〉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다.

22) 이때 ‘피벗-’이 파생어에서 ‘피복-~깨벗-’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고창 지역에서는 ‘피복쟁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접미사 ‘-쟁이’ 대신 명사 ‘짱구’가 결합한 ‘피복짱구’가 나타나는데, 역시 ‘피벗-’이 ‘피복-’으로 나타난다. ‘피벗-’의 ‘벗’이 ‘벗’으로 실현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벗-’피복-’의 과정을 상징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피복쟁이’의 ‘피복-’이 ‘피벗-’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기갑(2005:186)과 이태영(2001:167)의 견해에 따라 ‘피복쟁이’의 ‘피복-’을 ‘피벗-’과 같은 것으로 본다. 한편, 이태영(2011)에서는 전라 방언의 ‘피복쟁이’는 표준어 ‘벌거숭이’처럼 단순히 ‘옷을 벗은 사람’ 또는 ‘옷을 모두 벗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바지를 벗고 몸을 맞대고 살았던 아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복쟁이’는 ‘고향 친구, 동네 친구, 또래 친구, 소꿉친구, 허물없는 친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ㄴ. 승질 부리는 것이 아주 싸납쟁이가 따로 없구먼. <전북방언사전>

(8)은 형용사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들로, (8ㄱ~ㄱ’)의 ‘꼼꼼쟁이’는 전북방언의 형용사 ‘꼼꼼하다, 꼼꼼스럽다’의 어근 ‘꼼꼼’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이다.

(9) ㄱ. 꼬꼬버게(꼼꼼하게) 물 자불때 보텀 불바가꼬, 꼬꼬비서 보텀 뚜들기 시작허머는, 다 말르드락 고눔얼 펄렁거리서 개고 또 펄렁거리서 개고, 또 한번 뚜두러서 또 펄렁거리서 개고, 하례 점드락 그거, 고눔만 가꼬 싸와야혀.<지역어, 남원>

ㄱ’. 그 잘 사는 영감 하나는 잘 살고 한나는 못 산디, 잘 사는 영감이 꼬꼼혀갖고 뵈을 안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정읍군>

전북방언의 ‘꼼꼼하다’는 ‘꼬꼼하다’로도 나타나며, 이는 (9ㄱ)에서와 같이 ‘꼼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도 하고, (9ㄱ’)에서와 같이 ‘인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꼼꼼쟁이’는 ‘꼼꼼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돈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 즉, ‘구두쇠’를 의미하기도 한다.

(8ㄴ)의 ‘싸납쟁이’는 ‘성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센 사람’을 뜻하는 파생어로 형용사 ‘싸납다’의 어간 ‘싸납-’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이다. ‘싸납다’는 중앙어 ‘사납다’에 대응되는 방언형으로 ‘사납다’의 1음절에 어두경음화가 적용된 형태이다.²³⁾

(10) 뿔딱-쟁이

(10)의 ‘뿔딱쟁이’는 부사 ‘뿔딱’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인데, 부사 ‘뿔딱’은 중앙어 ‘발딱, 뿔딱’의 1음절 모음 ‘ㅏ’가 ‘ㅓ’로 실현된 형태이다.²⁴⁾

23) 이 지역에서는 ‘싸납-’에 접미사 ‘-배기’가 결합한 형태인 ‘싸납배기’도 나타난다.

24) ㅼ아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신부가 뿔딱 일어난개 치마 속에서 메주덩이가 폭

‘뿔딱’은 ‘눅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뿔딱쟁이’는 동작이 아주 날래고 재빠른 사람을 의미한다.

- (11) 개구-쟁이, 각-쟁이, 뚜-쟁이(중매인), 코깍-쟁이(코딱지), 야쑹-장이~야쑹-쟁이(구두쇠), 좌대-쟁이(왼손잡이)

(11)은 접미사 ‘-쟁이’에 선행하는 어기의 정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예들이다. (11)의 ‘뚜쟁이’는 ‘중매쟁이’를 뜻하는 파생어로, ‘뚜’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나 접미사 ‘-쟁이’에 선행하는 ‘뚜’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²⁵⁾ ‘코깍쟁이’는 ‘코딱지’의 전복방언형으로 ‘꼬깍’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전복방언에서 ‘눈곱’은 ‘눈쑹쟁이, 눈쑹재기, 눈쑹때기’ 등으로 나타나고, ‘때쑹’은 ‘때쑹쟁이, 때쑹재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꼬깍쟁이’는 이들 형태에 유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야쑹쟁이’는 ‘구두쇠’를 뜻하는 전복방언형으로 ‘야쑹’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야쑹’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²⁶⁾

- (12) ... 따리 하나 이썩썩썩, 큰딸허고, 큰따른 나가서 살고, 딸 하나 인는 거, 열두살쟁이가 내가 누룽지 머그께 그래요. <지역어, 고창>

전북 방언에서 ‘-쟁이’는 (12)에서와 같이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열두

빠진개, 똥덩이가 빠진 것으로 인자 인정을 했지. 그 얼마나 무참(무안) 했을 것이여? <구비문학대계, 남원군>

- 25) ‘뚜’는 직업적인 여자 중매쟁이를 이르는 말인 ‘마담뚜(madame)’에서도 보이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 전북방언에서 ‘뚜’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 26) ‘야쑹쟁이’는 <지역어 조사 보고서-고창군> 자료에 나타나는데 이는 ‘구두쇠’에 대응하는 전복방언형을 물었을 때 제보자가 대답해 준 방언형이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 ‘야쑹장이’가 쓰인 예가 아래와 같이 단 1회에 불과하고, 어기인 ‘야쑹’이 사용된 예가 없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박영감이라고 헌 이는 어떻게 사람이 야쑹장이 인색한 사람이던지 자기 것 넘 줄 줄도 모르고 넘의 것 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그냥 마빡(이마)에다가 송곳질을 팍 찢러도 맹물만 나오지 피도 없어요. <구비문학대계, 부안군>

살’에 접미사 ‘-쟁이’가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13) 터판-쟁이, 갓난-쟁이~깻난-쟁이(깻난이)

(14) ㄱ. 인자.(인제). 터팔아가꼬 인자, 절 띠긴노미 이쓰머는 인자.(터 팔아가지고 인제, 젓 떼 놓이 있으면 인제.) 엄마하고 고로케 머그머는 그놈도 달라드러서 머궁개 인자.(엄마하고 그렇게 먹으면 그놈도 달려들어서 먹으니까 인제). <지역어, 남원>

ㄴ. 광재 미테, 바로.(광재 밑에, 바로.) 광재가 터를 파라가꼬 거그도 머시마릴 낄쎄.(광재가 터를 팔아가지고 거기도 남자 아이를 낳어.) <지역어, 남원>

(13)의 ‘터판쟁이’는 전북방언 동사 ‘터팔다’의 어간 ‘터팔-’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하고 여기에 ‘-쟁이’가 결합한 것이다. ‘터팔다’는 ‘동생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터판쟁이’는 ‘동생을 본 사람’ 즉, ‘갓 낳은 아이의 바로 순위 형제’를 지칭한다. 이 지역에서 ‘터팔다’는 (14ㄴ)에서와 같이 조사가 삽입되어 ‘터를 팔다’로 쓰이기도 한다.

(15) 신작로 가상에 술 때우는 쟁이야. 정 떨어진 데는 ~ 좋다 ~ 못 때우느냐요 정 떨어진 데는 기와로 때우고 …… <중략> <구비문학 대계, 남원군>

(15)의 ‘술 때우는 쟁이’는 ‘깨진 술을 때우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즉, ‘술땀장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형형 어미 뒤에 접미사 ‘-쟁이’가 명사처럼 사용되었다. (13)의 ‘터판쟁이’와 마찬가지로 관형형 어미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구조는 파생어 형성에서 일반적인 구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경우는 전북방언에서 접미사 ‘-쟁이’가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결합하는 선행 어기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3. 접미사 ‘-쟁이’의 의미적 특징

이 장에서는 접미사 ‘-쟁이’의 의미, 그리고 접미사 ‘-쟁이’와 선행 어기와의 의미 관계를 통해 ‘-쟁이’ 파생어의 의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어를 대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사 ‘-장이/쟁이’의 의미를 다룬 노명희(2021)에서는 ‘-쟁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6) ‘-쟁이’

- ㄱ. [직업], [비하] ♣ 그림쟁이, 글쟁이, 손금쟁이, 일수쟁이 등
- ㄴ. [습관적 행위] ♣ 거짓말쟁이, 어리광쟁이, 주정쟁이 등
- ㄷ. [사람의 특성], [비하] ♣ 무식쟁이, 극성쟁이, 부끄럼쟁이 등
- ㄹ. [비하], [친밀지칭] ♣ 영감쟁이, 마누라쟁이 등

(16)은 크게 (16ㄱ, ㄷ)에서와 같이 선행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지시적 의미를 더함과 더불어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 (16ㄴ)에서와 같이 지시적인 의미만을 더하는 경우, 그리고 (16ㄹ)에서와 같이 지시적인 의미를 더하지는 않고, 오직 비하의 의미만을 더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기대어 본고에서는 접미사 ‘-쟁이’의 의미를 접사가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와 지시적 기능과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정감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정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17) ㄱ. 땀-쟁이, 점-쟁이(占-), 상-쟁이(相-), 사주-쟁이(四柱-), 관상-쟁이(觀相-), 문복-쟁이(問卜-), 중매-쟁이(仲媒-), 거간-쟁이(居間-), 출판-쟁이(出版-), 도배-쟁이(塗褙-), 바느질-쟁이, 성냥-쟁이~성냥-쟁이(대장장이)
- ㄴ. 활-쟁이, 줄-쟁이, 총-쟁이(銃-), 침-쟁이(鍼-), 엽총-쟁이(獵銃-)
- ㄴ'. 숯-쟁이, 낫신-쟁이, 소금-쟁이, 튀밥-쟁이, 가스-쟁이, 신문-쟁이(新聞-), 보일러-쟁이
- ㄷ. 부엌-쟁이, 주막-쟁이(酒幕-)

(17)에서 접미사 ‘-쟁이’는 ‘선행 어기의 행위, 혹은 선행 어기와 관계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이 경우에 대부분 비하를 의미를 더하는 정감적 기능도 동반한다.

선행 어기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7ㄱ)은 행위 혹은 행위성 명사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예들로, 파생어는 모두 행위의 주체를 지칭한다. 다만 ‘문복쟁이’의 경우는 ‘문복’의 주체, 즉 ‘복을 묻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 주는 사람’ 즉, ‘점쟁이’를 의미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파생어의 의미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17ㄴ~ㄷ)은 선행 어기가 모두 구체 명사, 사물에 해당하는데 (17ㄴ)은 구체명사가 행위의 도구, (17ㄷ)은 행위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17ㄴ~ㄷ)은 선행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이러한 사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한다. (17ㄴ)의 ‘줄쟁이’는 ‘줄’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을 뜻하고, ‘소금쟁이’는 ‘소금을 파는 장수’를, ‘튀밥쟁이’는 ‘튀밥을 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17ㄷ)은 구체 명사가 행위의 결과물로 ‘깎신쟁이’는 ‘깎신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숯쟁이’는 ‘숯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17ㄹ)의 선행 어기 ‘부엌’과 ‘주막’은 행위의 장소로 ‘부엌쟁이’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막쟁이’는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18) ㄱ. 겁-쟁이, 허겁-쟁이, 멧-쟁이, 켜-쟁이,²⁷⁾ 무식-쟁이, 유식-쟁이, 심술-쟁이, 뽀뽀-쟁이, 싸납-쟁이, 오기-쟁이

27) ‘켜쟁이’는 ‘켜를 내다, 켜가 있다’의 ‘켜’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켜를 내다, 켜가 있다’로 쓰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모두 쓰이나, ‘켜쟁이’는 ‘켜가 있는 사람’ 즉 ‘멧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켜를 많이 내는 사람’ 즉 ‘멧을 자주/많이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 너 오늘 켜를 겁나게 냈구나! 옷이 아주 켜가 있는데, 새로 한 벌 장만했는가?” <이태영,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아 요짐 꼬마들도 켜가 들어가꼬 머리다가 무쓰를 발르고 헌당게. 아 쪼깐헌 녀석들이 머슬 안다고 켜를 내고 그러냐고?” <이태영,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 ㄴ. 귀먹-쟁이, 부실먹-쟁이, 애꾸-쟁이, 외통-쟁이, 병-쟁이, 폐병-
쟁이, 간질-쟁이
- ㄷ. 코-쟁이, 배-쟁이
- ㄹ. 천주학-쟁이, 동학-쟁이, 예수-쟁이
- ㄹ. 빛-쟁이,²⁸⁾ 월급-쟁이, 봉급-쟁이
- ㅂ. 본토-쟁이

(18)에서 ‘-쟁이’는 어떤 상태나 특성을 나타내는 선행 어기에 결합하여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의 의미를 더한다. (18ㄱ)은 사람의 성격, 심성 등을 포함한 추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선행 어기에 ‘-쟁이’가 결합하여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때 ‘멧쟁이’를 제외한 나머지 파생어들은 모두 ‘비하’의 의미를 지닌다. (18ㄴ)은 신체적인 결합, 병명을 뜻하는 선행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그러한 결합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18ㄷ)의 ‘코쟁이’는 ‘코가 큰 사람’ 즉, 서양 사람을 의미하고, ‘배쟁이’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즉, 임신부를 지칭한다. 이때 선행어기 ‘코’와 ‘배’는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명사로 의미가 분명하나 환유적 과정을 거쳐 파생어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선행 어기와 접미사 ‘-쟁이’의 의미만으로는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²⁹⁾ (18ㄹ)은 종교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어기에 ‘-쟁이’가 결합하여 그러

28) ‘빛쟁이’는 ‘빛을 진 사람’과 ‘돈을 빌려 준 사람, 빛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의 상반된 의미로 모두 쓰이는데, 이선영(2011)에서는 이처럼 다의어 가운데 반의관계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단어를 ‘모순어’로 지칭하고, 이러한 모순어의 생성원인을 ‘의미의 모호성, 의미의 전염, 통시적 변화의 결과, 원인과 결과의 혼재, 생략된 성분의 영향’으로 보았다. ‘빛쟁이’의 경우는 파생어에서 선행 어기의 서술어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9) 박재연(2015가:222)에서는 어떤 명사가 사용될 때 그 지시 대상의 일부가 아니라 그 의미 성분의 일부만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활성 성분 현상이라고 명명하고 활성 성분 현상을 일종의 환유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젤리’는 ‘말랑말랑함, 먹을 수 있음, 달콤함’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젤리 슈즈’에서는 ‘젤리’의 ‘말랑말랑함’의 속성만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쟁이’나 ‘배쟁이’의 경우 선행 어기의 여러 의미 성분 중에 특정 의미 성분, ‘코

한 종교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천주학생이’와 ‘동학생이’는 각각 종교명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이고, ‘예수쟁이’는 신도들이 믿는 대상인 ‘예수’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을 뜻한다. (18口)의 선행어기 ‘빛, 월급, 봉급’은 금전적인 특성으로 ‘-쟁이’가 결합하여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18日)은 지역을 의미하는 ‘본토(本土)’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 ‘본토쟁이’는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고, ‘고향’의 의미로도 쓰인다.³⁰⁾

- (19) ㄱ. 육-쟁이, 말-쟁이, 썰-쟁이, 허풍-쟁이, 고집-쟁이, 요술-쟁이,
오입-쟁이, 방구-쟁이, 싸움-쟁이~쌈-쟁이, 거짓말-쟁이
ㄴ. 술-쟁이, 아편-쟁이
ㄷ. 원손-재~이

(19)에서 ‘-쟁이’는 선행 어기와 관계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뜻한다. (19ㄱ)은 행위 혹은 행위성 명사 어기에 ‘-쟁이’가 결합한 것이고, (20ㄴ)은 구체명사에, (19ㄷ)은 신체 일부에 ‘-쟁이’가 결합하였다. (19ㄴ)의 ‘술쟁이’와 ‘아편쟁이’는 각각 ‘알코올중독자, 아편중독자’를 의미하는데, 선행 어기와 관계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의 의미에서 그 정도가 심한 ‘중독자’의 의미까지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에서는 ‘요술쟁이’와 ‘원손재~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 갓-쟁이, 상투-쟁이,³¹⁾ 양복-쟁이

쟁이’의 경우는 ‘코가 크다’, ‘배쟁이’의 경우는 ‘배가 볼록하다’의 의미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집이 본토쟁이가 어디여 자오지간?(당신 고향이 어디여 좌오지간?)』 <전북방언 사전>

31) 『저녁밥을 먹고 잘 임시쯤 들어 왔어, 즈그 집에. 그러는디 그렇게 되어 노닝개 로(되어 놓으니까), 방에서 등잔불이 켜었는데 웬 상투쟁이 하나하고 웬 각시

(20)에서 ‘-쟁이’는 구체명사, ‘갓, 상투, 양복’에 결합하여 이들을 쓰거나 입은 사람의 의미를 더한다.

(21) 는-쟁이(송사리)

(21)의 ‘는쟁이’는 송사리를 지칭하는데, 정성경(2013:97)에서는 이 ‘눈쟁이’가 몸체에 비하여 눈이 유독 큰 송사리의 외형 때문에 만들어진 파생어라고 하였다.³²⁾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접미사 ‘-쟁이’는 전북방언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의미도 더하는 접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접미사 ‘-쟁이’는 지시적 기능을 수행할 때,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비하의 의미를 더하기도 함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비하의 의미를 갖게 된 ‘-쟁이’는 여기에 결합하여 지시적인 의미 변화 없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 비하의 의미만을 더하기도 한다.³³⁾

(22) 마누라-쟁이, 시어매-쟁이, 영감-쟁이

(23) ㄱ. 이 여편네가 뉘빠진 영감쟁이 부뤄허다가 덩달어서 실성을 헛
나, 갑째기 웬 행패여?” <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ㄴ. 엠병힐 영감쟁이 같으니라고! <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ㄷ. 아침 밥을 먹고 나닝게 그 논 임자가 왔드란 거여, 영감쟁이가
<구비문학대계 남원군>

(22)는 인칭명사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선행어기와 파생어의 지칭 대상은 같으나 비하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하나 비너 찢른 것 하나가 그림자가 있음개로 ... <구비문학대계, 남원군>

32)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북도편>에는 ‘는:쟁이’를 ‘송사리’에 대응하는 전북방언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는’은 ‘눈’의 오기로 보인다.

33) 이현희(2010:47)에서는 조어의 동기를 지시적 동기와 화용적 동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이 조어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형식적 기제는 접미사를 통한 파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때 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비하의 의미는 파생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해당 파생어가 사용된 담화 상황, 문맥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3ㄱ~ㄴ)에서는 ‘영감쟁이’에 선행하는 ‘넋빠진, 염병혈’ 등을 통해 ‘영감쟁이’에서도 비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23ㄷ)의 경우에서는, 해당 문장의 문맥만으로는 ‘영감쟁이’에서의 비하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다.

(24) 손목-쟁이, 발목-쟁이, 팔목-쟁이, 오금-쟁이, 눈꼽-쟁이, 때꼽-쟁이, 코깍-쟁이

(25) ㄱ. 저 빨갱이 자석놈이랑 같이 열려 댕기는 날이 바로 니놈 발목 쟁이 작신 뿌러지는 날인지 알거라!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ㄴ. 절을 찾아 들어간게, 참 산중이지. 들어간게, 아닌게 아니라 참 눈꼽쟁이 나다나다 쩌 중 늙은 중이 하나가 있어. <구비문학대계, 군산시 옥구군>

(24)는 신체 일부, 혹은 신체와 관계된 어기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손목, 발목, 팔목, 오금’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고, 신체 부산물인 ‘눈꼽, 때꼽, 코깍’에 ‘-쟁이’가 결합하여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6) 마당에서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쟁이에가 바짝 서있더라네. <구비문학대계, 완주군>

(26)의 ‘구석쟁이’는 위치를 뜻하는 명사 ‘구석’에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역시 지시적인 의미 변화 없이 비하의 의미만 첨가되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쟁이’의 영역, 즉 ‘비하’의 대상이 사람에 한하지 않고 다른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7) 복-쟁이(복어), 딱-쟁이~닥-쟁이(딱정벌레)

(28) 목수-쟁이(木手-), 이연-쟁이(醫員-), 석수-쟁이(石手-), 풍수-쟁이

(風水-), 포수-쟁이(砲手-), 대목-쟁이(大木-)

(27)의 ‘복쟁이, 딱쟁이’는 벌레를 뜻하는 파생어인데, ‘복’과 ‘딱’에 결합한 접미사 ‘-쟁이’가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예들이다. (29)의 경우도 사람의 의미를 지닌 선행 어기에 ‘-쟁이’가 결합한 것인데 비하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노명희(2021)에서는 ‘대장, 각수, 석수’에 ‘-장이’가 결합한 것을 그 의미를 강조하는 동의중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동의중복은 주로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동일한 뜻을 지닌 요소가 중복 결합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28)의 선행 어기가 모두 한자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직업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은 고유어 접미사 ‘-쟁이’가 다시 결합하여 이러한 파생어를 생산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접미사 ‘-쟁이’가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와 지시적 기능과 정감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정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를 나눠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 접미사 ‘-쟁이’는 선행 어기에 결합하여 주로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느쟁이’와 같이 동물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에, 대부분 ‘비하’의 의미를 동반하지만, 비하의 의미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비하’의 감정은 파생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파생어가 실제 사용되는 상황, 문맥을 통해서만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파생어에 대한 실제 사용 양상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접미사 ‘-쟁이’는 ‘사람, 신체 일부, 신체 부산물, 위치’ 등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지시적인 의미 변화 없이, 비하의 의미만을 더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가기

지금까지 전북방언에서 나타나는 ‘-쟁이’ 파생어를 대상으로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쟁이’ 파생어의 형태적인 특징은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는 선행 어기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쟁이’ 파생어의 의미적인 특징은 접미사 ‘-쟁이’의 의미와 선행 어기의 의미, 그리고 이들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방언에서 접미사 ‘-쟁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 어근에 활발히 결합하며, 외래어, 혼종어에도 결합하여 파생어를 생산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접미사 ‘-쟁이’는 명사구, 용언의 활용형 등에도 결합하는데, 이는 접미사 ‘-쟁이’가 이 지역에서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접사로 기능하면서 선행 어기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접미사 ‘-쟁이’는 선행 어기에 결합하여 주로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기와 관계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어기의 특성을 가진 사람, 어기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어기와 관계된 행위를 잘하는 사람’ 등의 의미를 더한다.

넷째, 접미사 ‘-쟁이’는 지시적 의미 외에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더하는 정감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 선행하는 어기는 ‘사람, 신체 일부, 신체 부산물, 위치’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지시적 의미를 더하지 않는 경우의 예들을 모두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파생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파생어들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전북방언의 ‘-쟁이’ 파생어를 살펴보면, 접미사 ‘-쟁이’가 어기는 공유하고 ‘-꾼’, ‘-쟁이’, ‘-배기’, ‘-대기’와 대응하여, 동의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인칭접미사들 간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제약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별도의 논의에서 다루려고 한다.

■ 주제어 : ‘-쟁이’, 전북방언, 파생, 파생어,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

<참고문헌>

1. 자료집

- 소강춘 외, 『2005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남원시)』, 국립국어원, 2005.
- 소강춘 외, 『2006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무주군)』, 국립국어원, 2006.
- 소강춘 외, 『2007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군산시)』, 국립국어원, 2007.
- 소강춘 외, 『2008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고창군)』, 국립국어원, 2008.
- 소강춘 외, 『2009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임실군)』, 국립국어원, 2009.
- 신기남 구술·김명곤 편집, 『어떻게 하면 똑똑한 제자 한놈 두고 죽을꼬(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3)』, 뿌리깊은나무, 1992.
- 전라북도청, 『전라북도 방언사전』, 전라북도, 20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5: 전라북도편, 서울: 성문출판사, 1987.

2. 논저

- 고영근, 『국어 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1974.
- 고영근,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 구본관,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제29집, 국어학회, 1997, 113~140면.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 구본관,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제39집, 국어학회, 2002, 105-135면.
- 김옥영, 「파생어 형성과 음운론적 유사성」, 『방언학』 제11집, 한국방언학회, 2010, 117~153면.
- 노명희, 「사람을 가리키는 ‘-장이’/-쟁이’ 파생어」, 『국어학』 제99집, 국어학회, 2021, 3~34면.
- 박재연, 「한국어 명사의 속성적 용법과 활성화 성분 현상」, 『국어학』 제99집, 국어학회, 2021, 137~173면.
- 송상조,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파주: 태학사, 2005.
- 송철의,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제38집, 국어연구회, 1977.
-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국어학 총서 18)』, 파주: 태학사, 1992.
- 이기갑, 「전남 방언의 파생 접미사 I」, 『언어학』 제41집, 2005, 159~193면.
- 이기갑, 「무더위와 우리말」, 『광주MBC 저널』(광주문화방송국 사보), 9월호(통권 94호), 2007, 51~52면.
- 이승재, 「전북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8, 국립국어원, 1987, 80~88면.
- 이태영, 「전북 방언 문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라문화연구』 제5집,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2, 35~64면.
- 이태영, 『혼불』에 쓰인 방언의 기능과 등장 인물의 성격,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학술총서2』, 2004 7, 293~340면.
- 이태영,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논총』 제41집, 2004 2, 21~55면.
- 이태영, 『문학 속의 전라 방언』, 글누리, 2010.
- 이태영, 「전라 방언 ‘피벗다’의 방언사적 연구」, 『영주어문』 제21집, 2011, 149~172면.

- 이태영,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2011.
- 이현희, 「화용적 동기에 의한 조어 과정」, 『어문학』 제109집, 한국어문학회, 2010, 37~61면.
- 임홍연,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 - 함북방언사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정민영, 「한자어 어근 ‘童, 匠, 直’의 국어 접미사화 과정」, 『어문연구』 제47집, 어문연구학회, 2005, 101~120면.
- 정성경, 「전남 방언의 파생 접사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2003.
- 최명옥·김옥화, 「전북 방언 연구」, 『어문학』 제73집, 한국어문학회, 2001, 203-224면.
- 최전승 외, 「전북 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제19집,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92, 49~144면.
- 최형용, 『한국어 형태론』, 역락, 2016.
- 하치근,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1989.

[Abstract]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aspects of the suffix, ‘-jaengi’ in the Jeonbuk dialect

Lee, Eun-seon

This study investigates morphological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suffix ‘-쟁이(jaengi)’ in the Jeonbuk dialect (North Jeolla). The suffix, -jaengi,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affixes both in the Standard Korean and the Jeonbuk dialect. Not much attention has been laid on the uses of ‘-jaengi’ in the Jeonbuk dialec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aspects of the ‘-jaengi’ in the Jeonbuk dialect based on the derivational words including ‘-jaengi.’

In the Jeonbuk dialect, the suffix, ‘-jaengi’ is attached to the following word classes - noun, verb, adjective, and adverb, even to the noun phrase and predicate. The ‘-jaengi’ adds the indicative and emotional meanings to its stem. For the indicative meaning, ‘-jaengi’ delivers the meanings of ‘a person who engages in the particular profession,’ ‘a person with a specific nature,’ or ‘a person who takes a repetitive action.’ It follows personal pronouns and body parts as well. These derivational uses attest that ‘-jaengi’ is productively used in the Jeonbuk area and its meanings are not restricted to humans but can be expanded beyond the human categories.

In this discussion,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nbuk dialect ‘-jaengi’ derivative, the ‘-jaengi’ derivative was primarily extracted from the Jeonbuk dialect data. And these derivatives were examined in terms of form and meaning.

In the Jeonbuk dialect, the suffix ‘-jaengi’ is combined with various fishing groups such as nouns, verbs, and adjectives to form derivatives, and due to the high productivity of ‘-jaengi’, it can be seen that ‘-jaengi’ is also combined with the use of noun phrases.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suffix ‘-쟁이’ could be largely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meaning of a person is added,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speaker are added, and other cases. In the case of adding a person’s meaning, it was confirmed that it functions as a conjunction with various meanings, such as “person who does such things professionally,” “person who does such things repeated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t has already been combined with personal nouns that have human meaning and nouns that mean part of the body or location to add meaning to the subordinate. This seems to have expanded to other areas, not just humans, as the suffix ‘-jaengi’ was actively used in this area.

【Key words】 : -jaengi, Jeonbuk dialect, derivational suffix, derivative, noun derivational suffix

이은선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자우편: t-eunseon@jbnu.ac.kr

| |
|---|
| <p>이 논문은 2021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1년 1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p> |
|---|